

광주 대표 상권 총장로 옛 영화 사라지나



광주에서 땅값 가장 비싼 곳인 광주총장로 우체국 인근에는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없다'는 현수막까지 붙어있지만, 공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m²당 1590만원 가장 비싼 땅 ... 공실률 30% 넘어 곳곳 빈 가게 창문엔 '권리금 없음·임대 문의' 메모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광주우체국 일대. 한때 광주의 대표 상권으로, 주말이면 발디딜틈 없었던 곳이지만 곳곳에는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광주우체국 앞은 지금도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 올해도 m²당 개발공시지가는 1590만원을 기록했다. 3.3㎡를 기준으로 하면 5256만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300m도 못되는 거리에 10곳 가까운 가게가 현재 폐업 상태다. 빈 가게 창문에는 '권리금 없음·임대문의'라고 적힌 메모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광주 총장로 상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임대료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권리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문을 열

고 있는 게 손해라며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구도심 공동화, 인구 감소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위정하더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로기' 상태에 내몰린 것이다. 광주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총장로 상가의 전체 공실률은 3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건물 2층 이상의 공실률은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40% 가까이 치솟았고, 공실이 거의 없던 1층 상가들의 공실률마저 15~20%에 이른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이라다보니 2~3년 전만 해도 1억~5억원에 달했

던 총장로 1~2가 핵심 상권의 권리금은 아예 사라졌다. 그래도 1층 상가 입점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었다는 게 상인들 전언이다. 총장로에서 40년째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정일상씨는 "2017~2018년 총장로 1~5가까지 1층 상가 기준 권리금이 1~5억 수준인데도 가게 구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총장로 상가에서 권리금은 거의 없어졌고 기존 상가들조차 계약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입점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철사하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다. 총장로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던 대형 화장품매장의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 월세를 한꺼번에 내 놓고 매장을 비웠다. 또 도심 변화가인 점을 감안, 대형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업체들이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직영 매장'들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철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건물주들이 기존에 비해 임대료를 크게

낮췄지만, 수지를 맞추기 힘든 세입자들에게는 여전히 임대료가 버거운 형편이라 공실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장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평균 월세가 10~30%가량 줄었지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총장로의 한 상가 건물주는 한시적으로 3000만원의 월세를 1000만원까지 내렸지만 상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충현 총장로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총장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는 "총장로 임대 빈 점포를 채우기 위한 간판정비·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인책을 찾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와 함께 총장로·금남로 일원 패션·뷰티 전문 쇼핑거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호남 RE300' 본격화

광주·전남·전북 공동 신재생에너지 생산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뉴딜'인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이하 호남 RE300)가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연구원과 3개 시·도당,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지난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호남 RE300 용역 결과 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당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 26명,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문승욱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 지역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 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자·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

가스 간 에너지 전환(섹터 커플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초광역에너지망'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현재 전력망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원 공급망과 저장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최근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 영국처럼 재

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늘려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도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초광역 권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호남권이 선도하는 '초광역에너지망'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 속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2조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60조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3358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생산유발 효과 387조686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공대 오늘 착공식

전남도·나주시 혈세 2000억 지원 지역인재전형 외면...지역에 무관심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1일 캠퍼스 착공식을 열고 개교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날 오후 3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대학 설립부지에서 열리는 착공식은 '에너지의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국회의원,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 지역 대학 총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착공식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착공식은 대학 UI(대학 이미지) 선포, 대학 설립·캠퍼스 건설현황 동영상 시청, 이사장 기념사, 총장 환영사 및 비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캠퍼스 건축은 개교를 위한 핵심 시설을 우선 건축하고 본관동 건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핵심시설 5000㎡의 경우 내년 2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관동 3만㎡는 올 8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임시 사용승인 받아 2024년 준공하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일정 기간 대학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대 신입생 선발 요강에 지역 인재 전형이 빠진 데 대해 전남도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학제(더불어민주당·목포4) 예결위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교육감의 요청에도 기류 변화가 없다면, 전남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결정권을 이용해 지역인재전형도입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4월 전남도의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발전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예산 지원을 위해선 매년 도의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단순히 야당 반대로 인해 지역인재전형도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 에너지 석학으로 키우기엔 지역출신 학생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대학에 매년 100억원씩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도의회가 던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수시전형 90명, 정시와 정원의 입학(고른 기회 전형)에서 10명씩 총 110명을 뽑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학 도서관에 꽂혀있는 '5·18 왜곡 도서' ▶6면
굿모닝 예향·노배우는 무엇으로 시는가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스킨스케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스킨스케어: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